

창상치유의 최신지견



장현선 교수 (Prof. Jang HS)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치주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치조골, 백악질, 치주인대 등 파괴된 치주조직의 재생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치조골과 치주부착의 재생을 자극할 수 있는 인자들을 통하여 제한된 조직 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주조직공학적 시도가 임상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람치주인대섬유모세포는 치주인대섬유모세포, 골모세포세포, 백악모세포로 분화, 증식이 가능하여 치주조직 재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치주인대가 소실된 치주염 환자 및 치주인대가 없는 무치악 환자들에서는 치주인대섬유모세포가 소실되어 없기 때문에 치아의 재식 및 치주인대섬유모세포를 이용한 재생 치료시 한계점을 나타낸다.

줄기세포는 섬유모세포, 골모세포, 혈관세포 등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줄기세포들을 이용하여 조직공학적으로 인체의 여러 조직들, 예를 들어 골, 혈관 형성 등의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치주조직 재생에 필수적인 치주인대의 치주공학적 형성은 향후 발거가 예상되는 심한 치주염 환자들에서 치주인대가 상실되어 있어 치아의 재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비용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강좌에서는 치주인대 형성을 위한 치주조직공학적 요소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요 학력 및 경력: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과장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및 석·박사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수련